



보도 일시	2022. 12. 1.(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30.(목)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곽정규 (044-201-7427)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 위해 추가 공공비축 추진

- 폐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분리수거 안내도 병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 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여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 * (제지사 재고, 만톤) '22.1월 15.1 → '22.6월 19.2 → '22.9월 16.9 → '22.10월 14.4
- 다만, 국내 폐지 가격(폐지 압축상 매입가격)은 올해 초 kg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 (국내 폐지 가격, 원/kg) '22.1월 149 → '22.6월 137 → '22.9월 108 → '22.10월 103
- ** (폐지 수출가격, \$/톤) '22.1월 189 → '22.6월 187 → '22.9월 126 → '22.10월 109

-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 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다.
-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지 재활용시장 현황.
2. 폐지 분리배출 요령. 끝.

□ 폐지 재고(천톤)

구분	'20				'21								'22										
	1	3	~	12	1	3	~	8	9	10	11	12	1	3	5	6	7	8	9	10	11		
제지사	96	94	~	104	80	101	~	63	133	141	150	170	151	172	167	192	164	163	169	144	-		

* 9, 10월 재고 통계치는 공공비축 물량을 제외한 수치임

* 11월 재고 통계치는 취합중으로 12월 중 집계완료 예정임

□ 폐지 가격(원/kg)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평균	평균	1	3	~	12	평균	1	3	~	8	9	10	11	12	1	3	5	6	7	8	9	10	11*
압축상	78	69	63	59	56	~	73	122	77	85	~	142	148	151	152	153	149	145	142	137	136	125	108	103	90

* 11월 통계 수치는 11.20일까지의 잠정 집계한 자료이며, 변동될 수 있음

□ 폐지 수출입 현황(천톤)

구분	'18	'19	'20	'21									'22							
	평균	평균	평균	평균	1	2	3	4	~	10	11	12	1	3	5	7	8	9	10	11*
수출	32	11	23	28	24	26	44	60	~	18	22	18	27	50	37	22	12	19	20	22
수입	32	44	42	40	36	35	58	36	~	47	39	33	25	33	27	33	28	32	19	14

* 11월 통계 수치는 11.20일까지의 잠정 집계한 자료이며, 변동될 수 있음

□ 폐지 수출입 가격(\$/톤)

구분	'21													'2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수입	257	185	206	220	241	250	255	263	277	285	292	299	310	308	299	284	283	293	297	287	297	283	246	216
수출	221	178	183	191	229	230	233	249	245	242	238	222	206	189	196	202	195	191	187	175	164	126	109	101

* 11월 통계 수치는 11.20일까지의 잠정 집계한 자료이며, 변동될 수 있음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